



보도시점 2026. 6. 12.(금) 14:00 (2026. 6. 13.(토) 조간)

##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-인구보건복지협회, 생명존중 경영 및 일·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맞손

- 생명존중 경영 실천 및 직장 내 모성보호·육아 친화 환경 조성 협력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KOSHA, 이사장 김현중, 이하 “공단”)은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(회장 김경선)와 생명존중 경영 및 일·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.

### 『생명존중 경영 및 일·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』

- 일시 : 2026. 6. 12.(금) 14:00
- 장소 :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의실  
(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20)
- 협약 당사자 : (안전보건공단) 김현중 이사장  
(인구보건복지협회) 김경선 회장

이번 협약은 저출생과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, 공단 내에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가족 친화적인 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다. 양 기관은 각자가 가진 산업안전보건과 모자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.

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다. 주요 협력 내용은 ▲직장 내 모성보호 및 육아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, ▲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동 캠페인 및 홍보 활동 전개, ▲인구·보건·안전 관련 통계 및 연구 자료 공유 등이다.

특히 아빠들의 양육 고민을 해결하고 코칭을 제공하는 ‘찾아가는 파더링’과 같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,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·가정 양립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. 이를 통해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생명 존중 경영 모델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“우리 공단 직원이 일과 가정에서 얻는 행복은 곧 국민의 안심 일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”이라며, “이번 협약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일·가정 양립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여 생명존중의 가치가 직장 문화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경영지원실 인사부	책임자	부 장	강현	(052-703-0560)
		담당자	차 장	김연진	(052-703-0563)

